

2014

연구보고서-23

I S S U E P A P E R


창조기업의 여성 친화성과 창조경영 실태


수행과제명 • 창조경제와 여성일자리(I): 여성창조기업의 활성화 방안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창조기업의 여성 친화성과 창조경영 실태*

수행 과제명  창조경제와 여성일자리(I): 여성창조기업의 활성화 방안

과제책임자  이택면 연구위원

 Tel: 02-3156-7167

 e-mail: onbike@kwidimail.re.kr

요약

우리나라 창조산업은 아직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고 고용효과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 크지 않으나, 창조산업내 여성기업의 여성고용효과는 다른 업종이나 남성창조기업에 비해 현저히 더 큰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창조기업 친화적, 여성기업 친화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창조기업의 성장과 고용 잠재력 제고를 담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일자리 확충과 고용률 70% 목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택면·김영옥·배호중·이희승·최은경(2014). 창조경제와 여성일자리(I): 여성창조기업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창조경제’ 담론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창의성과 혁신에 입각한 동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으나,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선진국의 지속가능 성장과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적 “도약(frog-leap)”을 위한 글로벌 발전 의제(global development agenda)로 자리잡게 됨(UNCTAD, 2004, 2008, 2010).
- 우리 정부 또한 현 한국경제가 성장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면서 성장 잠재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상정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여러 과제와 전략들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창조경제는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돼 왔으며(UNCTAD, 2010), 그 중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상당수의 연구가 창조부문 종사 근로자의 노동과정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질적 분석이거나 거시적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한 추정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
- 창조경제의 고용 효과는 산업별로 기업 특성별로 계량적 분석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미시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어느 한 성(性)이 다른 한 성에 비해 선천적으로 창조성이 더 높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는 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창조경제 하에서 동등한 창조성 육성 및 발현 기회를 가지며 그 결과로 동등한 노동시장 지위 향상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임.
-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주체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시장과 경제에 역동성(dynamism)을 부여하는 창조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창조기업의 생성과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창조

경제 활성화의 열쇠라고 할 수 있으며 창조기업의 증가와 시장에서의 성공은 곧 일자리(창조기업가로서 또는 창조기업 근로자로서)의 확충을 야기하므로, 창조경제 활성화의 고용 효과와 그것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그 과정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남성의 경우에 비해 더 낮지 않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 창조기업의 확산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의 창조경제 생태계가 특별히 여성 창조기업가의 사업기회에 대해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발전 궤적 속에서 창조경제 화두가 등장하게 된 맥락을 밝히며, 그 맥락 속에서 현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목표와 구현 노력을 살펴봄.
- 둘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창조산업을 정의(산업분류 체계상 창조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들 창조산업에 속하는 창조기업의 실태와 변화과정을 파악함.

■ 이같은 분석을 통해 ① (대표자 성별 창조기업 규모별) 창조기업의 증감추이, ② 창조기업의 창업, 성장, 폐업 등 생애주기별로 대표자 성별에 따른 체계적 차이 존재 여부, ③ 창조기업의 성장과 확산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지, 남성의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했는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했는지, 여성 창조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도가 남성이 대표자로 있는 창조기업에 비해 더 큰지 ④ 정부의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개발지원, 창업 지원 등의 정책들이 창조산업의 진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됐는지, 남녀 창조기업가에게 동등한 효과를 미쳤는지 ⑤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창조기업

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고 그 효과가 남녀에게 균등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창조산업의 정의와 범위

-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표준분류(KSIC) 세세분류 코드에 대해 표준 산업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창조산업 구분을 시도한 여러 선행연구들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준에서 창조산업을 구획한 영국 DCMS의 분류를 대체로 따르면서 제조업과 일부 도소매업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문화컨텐츠 분야만을 창조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함.

〈표 1〉 본 연구의 창조산업 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J.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31)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58112. 만화 출판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58121. 신문 발행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1310. 광고 대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정설계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60210. 지상파 방송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60222. 유선방송업		73303. 사진 처리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3901. 매니저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	90121. 연극단체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63111. 자료 처리업		90123. 기타 공연단체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63910. 뉴스 제공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639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나. 우리나라의 창조산업 현황과 추세

- 「2012년 전국사업체 조사」를 활용한 분석결과 창조산업에 속하는 창조 기업 숫자는 63천여개사로서, 총 3,407천여개 기업 중 1.8%에 달함.
- 이는 본 연구의 창조산업 정의가 비교적 협의의 정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구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중이며 창조기업 중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은 10,516개사로서 전체 창조기업 중 16.8%에 그쳐 전체 기업의 여성대표자 비율 38.6%에 비해 창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대표자 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종단적으로 봤을 때 2007-2012년 기간 동안 창조기업의 숫

자나 고용인력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한해를 기준으로 기업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창조기업과 여성대표자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여성 창조기업은 남성 비창조기업에 비해 고용 증대효과가 더 크고, 특히 여성 고용효과를 더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음.

- 창조기업만을 별도로 표본조사(『창조기업 실태조사』)하여 그 경영실태와 창조·혁신활동 현황 등에 대한 더 세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창조산업 분야에 속하는 창조기업들의 창조성·혁신성을 높이는데 정부의 정책적 개입(재정 및 인력지원)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창조성·혁신성이 높은 창조기업은 고용창출 잠재력도 크고 실제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고용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 여성창조기업은 남성창조기업에 비해 창조·혁신성 정도가 낮고, 기업 성과도 낮으나, 여성인력 고용 잠재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조기업에 대한 기업의 인력지원 정책은 여성 인력 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기업의 창조·혁신성이 기업 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창조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창조·혁신 노력이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함.

다. 창조기업 실태조사 및 여성 창조기업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창조기업을 경영하는 여성 대표자의 생생한 체험을 파악하고자 경남, 충남, 전북, 경기 지역의 전형적인 여성 창조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여성

대표자로서의 애로사항,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사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터득한 전략과 노하우, 정부 지원 수혜 경험 및 향후 바라는 지원 정책 등을 사례분석을 통해 조명했으며, 또한 창조산업에 속하는 세 대분류 업종별로 여성창조기업 CEO를 FGI형태로 심층 면접하여 그들의 창업과정에서부터 현재 사업체 경영 과정에 이르는 다채로운 경험들을 분석함.

- 분석 결과 첫째, 여성창조기업가는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아무리 과거 전문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고 그것에 기반한 탄탄한 창조적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경력단절의 시기를 벗어나 창업을 통해 일의 세계로 뛰어들고자 할 때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컨설팅, 제도화된 창업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매우 필요로 함을 발견함.
- 둘째, 여성으로서 자신의 사업을 경영한다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심지어 차별적 관행들이 상존하고 있고 그것을 감수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함.
-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성 대표자들은 여성 대표자로서 애로사항과 차별적 관행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발휘 가능한 장점과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정직한 품질이나 서비스 우위, 투명한 경영, 공적인 가치에 대한 몰입 등임.
- 넷째 창업단계 혹은 그 이후 기업 성장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정책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여성 창조기업가에게는 여전히 정책 수혜의 가능성이 멀게 느껴지고 있으며, 심지어 수혜 대상 선정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발견됨.
- 다섯째, 이런 와중에서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여성에 특화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여성 창조기업 창업자가 목말라 하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3 정책제언

제안1) 창조산업분야에 특화된 금융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금 지원 사업으로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 자금, 긴급경영안전 자금, 사업전환 자금, 투융자 복합금융, 신보·기보 등에 의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서민지원 햇살론, 청년 전용 창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등을 들 수 있음.
- 창조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자금 지원 수혜율이 여성 창조기업 중에서 현저히 더 낮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여성 창조기업 중 정부 정책자금 지원 수혜 경험 비율은 13.1%, 남성 기업 중에서는 17.5%), 위에 열거한 각종 자금지원 사업들에서 여성 창조기업이 체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중기청의 정책자금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수출기업, 기술보유 기업에 집중돼 있고, 창조산업 분야 그 중에서도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임.
 -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정부 정책금융 지원 수혜 경험에 대해 지원 대상자체가 아니라서 비해당으로 제외된 기업의 비중이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서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음(같은 창조산업 부문 중에서도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서 비해당은 4.0%,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비해당은 6.3%에 불과).

- 기업 규모 면에서도 여성 창조기업이 밀집해 있는 5인미만 영세 기업 중에서 정부 정책금융 수혜율이 14.4%로 가장 낮음(수혜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30-49인 규모로서 25%에 달함).

■ 개선 방안 제언

- 여성 창조기업의 정책 자금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여성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하거나, 여성기업이 많이 분포해있는 창조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성 기업 수혜가 증가하도록 하는 두가지 정책 제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기청 금융 지원 사업들 중에는 명시적으로 창조산업 분야만을 지원하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움.
 - 창업기업지원사업,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과 같이 그 지원 대상 중에 문화콘텐츠 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혹은 1인 창조기업이 포함돼 있는 지원 사업이 있을 뿐, 창조산업 분야 종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사업은 존재하지 않음. 그나마 지원 대상이 되는 창조산업 분야로는 주로 문화콘텐츠나 지식서비스로 일컬어지는 일부 업종 뿐이며, 여성 기업이 많이 분포해 있는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오락 관련 서비스 업종은 신용보증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의 명목으로 추진되는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정도임.
- 그러므로 창조산업, 특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특화된 자금 지원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분야 여성기업에 대해 선정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시장원리에 기반한 창조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벤처기업의 기술과 창의성, 시장수요 등에 대한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주도의 벤처 창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벤처 창업에 대해서도 그 창의성과 시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해야 함. 이 과정에서 여성 창조기업 대표들의 FGI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남성들의 카르텔 문화, 정실문화에 의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조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안2) 창조산업분야 맞춤형 기술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육성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업 육성 사업,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사업의 경우 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혹은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과제관리시스템에 이공계 전문가 30인 이상을 소속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기술애로 해결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체 창조기업 중 연구개발 전담 조직이 있다는 응답비중이 2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창조기업의 상당수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 수혜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고부가가치 시장지향적 신제품·신상품 개발 과제를 자유응모나 지정공모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 내용 면에서 창조적 서비스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창의적 기업이 후순위로 밀려날 소지를 안고 있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창조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 등 여성기업 비중이 낮은 업종에 국한돼 있고 업력 3년 이하 신생 기업이 전체 여성기업의 44%를 차지한다는 점(남성기업 중에는 34.4%)을 고려해볼 때 여성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낮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육성사업은 예술·문화 콘텐츠 분야 등 신기술 추구적이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창조기업을 명시적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나, 여전히 업력 3년 이상의 정상 가동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여성 창조기업의 44%, 남성 창조기업의 34.4%가 배제되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아쉬운 점임.
- 그 외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업 육성 사업, 등은 대체적으로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 신기술을 응용한 신제품 개발 중심의 지원 사업들로서 문화·예술·공연 등 핵심 창조산업 부문에서의 비기술적 창의성 발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있는 여성창조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역시 명목적으로는 시스템 SW개발공급업, 응용 SW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등에 속하는 중소 혹은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업종 역시 창조산업 내에서 대표적인 기술 지향적 부문으로 꼽히기

때문에 창조산업내 여성기업에 친화적인 지원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 창조기업 혹은 창조기업가의 R&D 및 창조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였으며, 성별을 가리지 않는 지원 정책 또한 남성에게 수혜가 편중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 계량분석 결과, 연구개발 전담조직 운용,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위탁교육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에 도입하기 위한 5가지 활동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실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여성 창조기업 중에서는 74.5%, 남성 창조기업 중에서는 74%로 나타나는 등 여성창조기업의 창조혁신활동이 남성기업에 비해 뒤질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부 자금 지원 수혜율이 여성창조기업 26.4% 대 남성창조기업 40.2%로 기술개발 관련 정책지원 수혜율이 더 낮은 것은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개선 방안 제언

-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을 창조기업 혹은 여성창조기업에 얼마나 친화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해볼 때,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 신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신시장 개척 지향적 사업이라는 점임.
 -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기술지원 사업은 전통적 제조업이나 창조산업 중에서도 ICT 중심의 기술 지향적 부문(남성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에 수혜가 편중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움
-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 혹은 기술 지향적 업종 일변도인 지원 사업들 중에서 최소한의 비기술적 창의성에 의존하는 문화예술 등 핵심 창조산업 분야를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비기술 분야의 혁신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원 대상을 비기술 혁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

하는 것을 제안함. 예컨대 이노비즈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자체의 목적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비기술적 창의성에 의한 혁신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넓히기 보다는 정보서비스업 등 ICT 관련 신기술 의존성이 강한 창조산업들을 보다 더 많이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 선정시 여성기업, 혹은 여성인력 비율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사업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비기술 문화분야 중소기업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유일하나, 향후 이러한 핵심 창조분야 중소기업의 비기술적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를 늘려야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런 사업 물량의 확대는 비기술적·문화적 창의성의 가치나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자칫 지나친 정부개입의 전형적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또한 비기술적 혁신에 대한 가치 평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한편 지역 사례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성창조기업은 대체로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자격을 갖추기 훨씬 이전에 이미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들에 직면하게 됨.
 -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이 그 3년을 잘 버텨서 이미 본 궤도에 오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술 면에서나 창의성 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초기 신생기업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사업에서 업력 3년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신생 기업이 더 많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이나 디자인권)과 같은 비기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혹은 침해 방지 및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함.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여성창조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경험 비중이 남성창조기업에 비해 현격히 더 높으며(여성창조기업 14.5% 대 남성창조기업 4.7%), 지적 재산권 중 특히 저작권 침해는 건수 기준 남성 창조기업의 6배(여성창조기업 저작권 침해건수 12.1건, 남성창조기업 2.3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기청에는 여러 가지 기술 보호 관련 서비스들은 제공되고 있으나(기술보호상담,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저작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비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함.

제안3) 인력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본 연구에서의 계량분석 결과, 정부로부터 인력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며, 여성 인력의 비중도 더 높고, 향후 여성인력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창조기업의 고용 창출 역량이 중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들로는 외국인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 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외국인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에서 대상기업 선정시 핵심 창조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우대 지침이 없어, 특별히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창조기업 및 여성창조기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실태조사 결과 창조기업 중 외국인력 지원을 받았다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며 여성

창조기업 중에는 0.1%에 불과).

- 벤처기업 중 어떤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받았으며, 벤처기업 구직자 중 여성의 수혜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업 성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 사업 역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년) 결과 조사대상 벤처기업 중 창조산업 관련 업종(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265개사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전체 벤처기업 기준 1기업당 평균 남성근로자 수는 19.1명인데 반해 여성근로자 수는 6.4명으로 남성이 3배 이상 많은 상태로서, 이 사업 역시 비기술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여성창조기업이나 여성구직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낮은 수혜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임이 자명함.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같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양성을 타겟팅하여 지원하는 사업 역시 창조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특정하여 일종의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이들 사업에 대한 창조기업의 낮은 수혜율을 끌어올릴 수 없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창조기업 중 ‘특성화고·전문대학 재학생 교육후 채용연계 제도’의 수혜를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7%, 여성창조기업 중에서는 1.3%에 불과한 실정임.

■ 개선 방안 제안

- 정부로부터 인력지원을 받는지 여부는 창조기업의 고용 창출 역량에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치지만, 창조산업 분야 종사 기업들 중에서 정부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특히 여성창조기업 중에서는 더 낮은 실태를 고려할 때, 중기청의 각종 인력지원 사업에 창조산업 분야와 여성기업에 대한 일종의 적극적 조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외국인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경우 외국인력 채용 알선 대상 기업 선정시 심사 기준에 창조산업 분야(특히 핵심 창조산업 분야) 중사 기업과 여성대표자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 사업 역시 현재 매우 비중이 낮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 분야 벤처기업 우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 교육기관 대상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창조산업 인력에 특화된 양성기관을 특별 우대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특성화고 중에서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등 창조산업 분야 특성화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대학 중에서는 사진·만화·영상예술 등 응용예술 계열과 연극영화 계열 학생들의 참여 비중을 높여줄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필요함.
- 남성 졸업자나 근로자에 대한 병역특례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관련 전공 청년 여성들이 결혼 혹은 출산으로 인해 경력을 단절한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고자 할 때 인적 자원 마모 방지를 위해 해당 분야 최신 트렌드 및 숙련 수준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제안4) 창업 지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창조경제의 주요 동인 중 하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끊임없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수혈할 수 있는 창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음.
-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해도 그것을 자산 삼아 재창업할 수 있는 창업 생태

계가 조성되어야 창조경제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중기청의 창업지원 사업을 간략히 열거해보면, 창업보육센터 경쟁력강화사업,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 지정·운영사업,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시니어 창업활성화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창업지원 사업을 크게 창업자금 지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업 인프라 강화, 재창업 지원으로 나누어볼 때, 창조산업 분야에서는 창업자금 지원과 재창업 지원 분야 사업은 전무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 사업과 창업 인프라 강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기존의 비창조산업 분야 창업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비해 그 규모나 물량이 매우 미미하며, 창업인프라 강화사업은 기존의 창업보육 강화 사업을 창조기업(1인창조기업)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실태조사 결과, 창조기업들 중 창업보육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8.6%, 대학이나 국공립연구소 등의 창업보육 과정을 통해 창업한 경우는 5.3%에 불과하고 여성창조기업의 경우에는 4.4%에 불과함. 또한 창업당시 창업이나 기업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창조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수혜 비중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제언

- 창조경제 하에서 창의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정책 지원 방식이 고안되어야 함.
 - 우선, 정부 지원의 기준과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조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이상 자리잡지 못하게 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등등에 있어 행정절차의 경직성이나 비전문성을 과감히 혁파해나가야 함. 특히 창조기업의 창업에

있어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업 창업의 성패여부를 재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창조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로서, 창조경제시대 창조기업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조영삼 외, 2013).

- 여성 창조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공 창업자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공정성 있는 게임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 창업 실패로부터 초래되는 위험과 손실을 최소화하여 “무거운 창업에서 가벼운 창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창업생태계 구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이민화·김영지, 2013: 99).
 - 창업에 필요한 주변적 부수적 서비스들은 모두 아웃소싱, 네트워킹을 통해 생태계에서 조달하고 창업자는 핵심역량에만 집중하면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지지 않고 소규모 자기자본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며, 실패해도 낙락으로의 추락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창업생태계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창조기업, 창조경제 활성화의 선결 요건임(이민화·김영지, 2013: 99).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타겟에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 정책이 되어야 함.
 - 현재 일반형 창업이든 기술형 창업이든, 특정한 산업분야나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특화형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히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창업지원 사업은 많으나, 그 업종이나 전문 분야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성 대상 창업지원은 주로 생계형, 비기술·비창의적 골목 상권 창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특정 인구집단을 타겟팅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창조산업, 그 중에서도 모바일앱,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분야 등 특정 분야를 적시한 매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원의 전 영역(자금지원, 교육 및 컨설팅, 창업실무 자원, 성장 지원, 재기 지원 등)이 해당 초점 분야에 맞춰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책과 전달체계가 필요함.

4 기대효과

- 창조산업과 창조기업의 명확한 정의에 입각한 창조경제 고용효과에 대한 미시적 계량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더 정밀한 고용 효과 및 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함. 특히 남성과 여성이 과연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창조경제 하에서 동등한 창조성 육성 및 발현 기회를 가지며 그 결과로 동등한 노동시장 지위 향상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구축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의 구현을 통해 새정부 국정목표인 고용률 70%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음.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 목표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므로 본 연구는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며, 과연 그동안 창조경제 구축 드라이브가 고용, 특히 여성의 고용을 높이는데 기여하는가를 확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주체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시장과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창조기업이므로, 창조기업 실태조사 분석 및 여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창조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정책 지원 분야와 기존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주체인 창조기업의 활성화와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여성 창조기업의 경영실태와 고용여건 분석을 통해, 여성 창조기업의 확산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

춤으로써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여성창조기업 지원에 정부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경험적 근거를 제시함.

- 중기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리뷰를 통해 창조산업 부문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과, 정부 지원이 지나치게 기술지향적·제조업 지향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향후 창조산업 및 이 분야에 종사하는 창조기업과 여성창조기업이 더 성장하고 고용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재설계하는데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부처 : 중소기업청
